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4.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법정스님이 찍은 사진과 글(진영각)

이न्द्र리까 길리만자리^(1950m)
우후루 봉 (BAHURU PEAK, 2리밭
5,950m) 등반길, 2리밭
봉계소인 기보 산장 (KIBO HUT,
2리밭 4750m) 이 불어진
맑고 향기롭게, 스티카.

우리 화인이 2리를 리만자리
불어 놓았. 2리밭 기보 봉
지대 이 ~~봉계소~~ ~~산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리만자리.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4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특별기고	12	20주년 기념 '맑고 향기롭게' 매뉴얼 복 연구를 끝내고
처음 마음으로	18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
천진난만	23	사랑
책 속의 책	24	격갈간지 (녹색평론)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6	아름다운 마무리
참교육 이야기	28	국내 총생산의 6%, 사교육 과열 언제까지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2	30대 어른의 성장 만화 - 마스다 미리의 작품들
한국불교전설	36	불보(佛寶)를 수지한 스님 (승주, 송광사)
내 마음속 풍경	40	따로 혹은 같이, 부부라는 이름의 공동체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2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가

글·법 정(法頂)

과일에 씨앗이 들어 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을 불성(佛型) 혹은 영성(靈性)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이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우려면 우리들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라 얘기 합니다. 원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히고 비울 것인가. 절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 중에도 절에 안 나가는 사람보다 옹졸하고, 딱 막혀서 뭐 하나 배울 것이 없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관념적

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것으로는 마음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나, 염불,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쪽이 예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두루 착한 일을 행할 때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아집니다.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칠불통계(七佛通戒)’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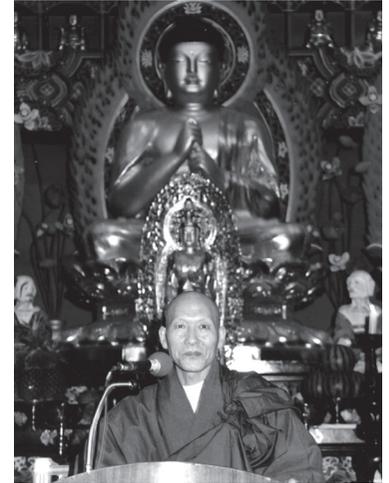
자정기의(自淨其意) 시계불교(是諸佛敎)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하라. 그러면 절로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절 인연이 오면 스스로 연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두루 착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의 둘레도 점점 맑은 기운이 번져 갑니다.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가령 부처님과 예수님, 공자님 같은 성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의 맑은 마음은 메아리가 되고, 두루 비추는 빛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인류 역사상 안 계셨다면 현재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당신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얘기를 듣고 눈물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파하니깐 우리도 아픔을 느낀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묘리예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그럼 선행(善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나눈다는 건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게 아니예요.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 우주의, 법계의 선물을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

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가는 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란 나누는 겁니다. 또 바라밀이란 이쪽에서 저 쪽으로 건너는 일, 세상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이란 세상을 살데 제일가는 덕이 보시, 곧 나누는 일이란 뜻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곱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은 나누면 몇 분의 일로 줄어들어요. 나누는 일에는 이처럼 미묘한 율동이 따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언짢은 관계는 우리를 언짢게 합니다.

세상 만물은 시간이 감에 따라 시들고 쭈그러듭니다.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生住異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영혼에 나이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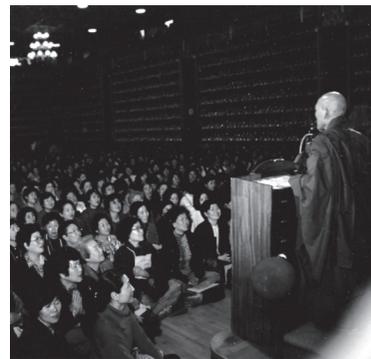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시들어요. 끝도 없는 것을 따르려니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자기중심에서 살면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 적은 것으로써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질 않아요. 늘 겪는 일이죠. 선물의 경우 너무 크고, 많으면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을 알게 되면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맑은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제가 있는

곳은 궁핍하고, 거의 모든 것이 원시 상태예요. 하지만 그게 편해서, 그곳에서는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지금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난겨울에 밖에는 눈이 내리고, 뒷골에서는 노루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내 마음도 소년처럼 좀 부풀어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묵은 편지들을 뒤적이다가 몇 군데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참 먹을 갈다가 편지 쓸 종이를 찾으니까 도배하고 남은 종이 사이에서 쪼가리 화선지가 두어 장 나와요. 다행이다 싶어 그걸 잘 다듬어서 편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종이가 한정되어 있다 싶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잔글씨로 편지를 쓰면서 아주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서울에 나왔다가 지업사에서 한 20장의 화선지를 사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쪼가리 종이에 편지를 쓸 때의 그 오붓함, 살뜰함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많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가지려는 사람이 바로 무소유자입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았던 안 됩니다. 필요란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욕망은 없어도 좋을 분수 바깥의 욕구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유교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 뜻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그가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
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건 늘 갈증상
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족 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
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
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
렸습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끼는 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지만 그 단순
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
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
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날
씨가 껏으면 몸이 쭈시고 아프다고
들 하시죠. 하지만 화창한 날이면 괜
시리 우리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왔습니
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논밭의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오
늘 종일 말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고마운 줄
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더럽히고, 허물고, 끝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조차도 자기 동지
는 더럽히지 않는데 인간이, 소위 문
명했다는 인간만이 자기의 생활환경
인 자연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만신
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은 곧 우
리가 병을 앓는 것이요, 자연의 신음
소리는 우리의 신음 소리임을 알아
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우
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
니다.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든 자연, 허물어져 버린 자연
에는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수 없습
니다. 자연이 죽어가듯 인간의 생명
도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과잉 소비
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추일게 아
니라 이제는 적은 것, 작은 것의 귀
함, 소중함을 알아서 더 이상 자연이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
눔으로써 맑은 기쁨을 얻으려 하고,
만족할 줄 알며, 소유는 꼭 필요한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려는 그 마음
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
름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소극
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
게 살기 위한 지혜의 선택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
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 시켜가는 명상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입니다. 전자는 지혜의 길이요, 후자

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을 통
해 우리는 본래부터 지녔던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틔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
마다 자신이 지닌 그 귀한 불성의 씨
앗으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길
거듭 다짐합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
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을 그리고
맑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
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
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시다.

-1994년 3월 26일 양재동 구룡사에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말씀 정리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 사회적 메아리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 일에는 낱알이 그 이름을 들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맑고 향기로운 뜻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다달이 성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 결식 이웃을 위해 집 안일을 제쳐 두고 매주 밑반찬을 마련해 주시는 자원봉사 회원들, 그리고 각 지역모임에서 사재를 들여가며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보살피고 오시는 분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마침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는 이 가르침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발원합니다. 또 아침마다 기도 끝에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 일에

동참한 분들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는 일마다 장애 없이 맑고 향기롭게 회향하게 하소서.’

- 맑고 향기롭게 10돌 기념
법정스님 말씀 중에서

1993년 8월 어느 날,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서 정진하던 법정스님은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으로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진흙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워내는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법정스님의 말씀을 화두 삼아 몇몇 어른들이 송광사 서울분원 범련사에 모여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을 과제로 소박하지만 올림이 있는 아홉 가지 실천 덕목이 책겨지고, 운동의 상징으로 [연꽃스티커]가 만들어지면서 법정스님을 회주로 하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 있는 이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 운니동의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의 눈물겨운 동참이 늘어났지만 모임 장소가 없어 이 절 저 절 남의 신세를 저야했었습니다.

1987년 처음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기증할 뜻을 밝힌 김영한 여사는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듭 절로 만들어줄 것을 간청하였는데,

법정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시절인연이니 어쩔 수 없다. 절은 개인의 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전통적인 승가의 규범이다.”는 말씀을 하시며 조계종 송광사 말사로 등록하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이 얼마만큼 맑고 향기로우셨을까요?

3월 30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작은 기념식과 더불어 음악회를 길상사 설법전에서 마련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릴 수 없어 죄송하지만, 후원회원님! 자원봉사자님! 지역모임에서 참여하시는 회원님! 드러내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인연님께서 이 날 하루만이라도 다함께 모여 지나온 20년을 축하하고 새롭게 다가올 30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20주년 기념 「맑고 향기롭게」 매뉴얼 북 연구를 끝내고

글·고현

❖ 20년 전을 추억하다.

법정스님께서 불일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 필자는 광주에서 텃밭을 일군 인연으로 일찍이 30대 초반부터 스님께 친견 드리는 북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러기를 십수년, 어느 날 스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맑고 향기롭게」얼굴 작업 때문이었다.

1993년 여름, 스님은 이미 불일암과의 인연을 접고 또 다시 ‘버리고 떠나기’를 시도하여 강원도 첩첩 산중으로 옮기신 직후였다.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스님은 강원도에서 각각 상경하여 (지금은 대궐처럼 변해버렸지만) 경복궁 정문 앞, 퇴락한 법련사 골방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스님을 독대하게 되었다.

보름 동안 그려진 연꽃 그림은 6개

월 동안 스케치 2백여 장에, 완성작만도 50여점에 이르렀고, 그림을 보시는 스님의 탁월한 안목은 역시 당신 문장 수준이었다. 꽃잎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튼다, 문힌다에서 꽃잎이 화려하다, 만개했다, 수줍다, 대답하다, 여위었다, 둔하다 등에 이르기까지...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의 펼침이나 확대의 차이, 축소와 생략의 차이, 색채의 어둠(dark)과 깊이(deep)의 차이, 스케치 선의 둔(鈍)과 예(銳)의 차이를 그렇게 날카롭게 채접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나, 어지간히 까탈스럽지? 감히 전문가 교수님을 이렇게 부러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이젠 됐네! 우선

거사. 너무 좋아! 고생했어!” 라는 말 씀을 듣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다. 그 후에도 인쇄과정, 지질의 선택, 크기 비례의 조율, 코팅여부의 결정, 뒷면 문장 작성 등등... 두 달을 더해 손바닥만한 스티커 한 장 얻는데 6개월이 걸렸다.

만나기 어렵다던 법정스님을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독대한 인연이 어디에 또 있을까?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당시 법련사 주지셨던 청학 스님의 격려와 위로도 있었지만 왕복 9시간의 고속버스 여행도 지칠 줄 모르고 뛰어 다녔다.

그러나 정작 제작자로서의 마음고생은 작업이 끝나고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초대 이사들이나 관계자들의 인식은 그저 여기저기 붙이는 한 장의 스티커(sticker)에 불과했고, 필자는 「맑고 향기롭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character)로서, 개념의 차이는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급한 대로 스티커만 완성되

었을 뿐 나머지 70%를 더 작업해야 되는 매뉴얼 북(Manual Book) 연구와, 각 지역 실무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관계자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차례 회의 때마다 ‘매뉴얼 북 개발’에 대해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간곡히 설득도 해보았다. 그러나 20년 전만해도 우리 교계에서 TI(Temple Identity)·BI(Brand Identity)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다. 이 모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회성 단체도 아니고, 우군이 없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없이 외롭고 속 터지고 안타까운 마음고생이 어제일 같았는데 벌써 20년 세월이 되어버렸다.

❖ 시절 인연은 따로 있었다.

필자는 유발 상좌 입장에서 법정스님을 30년 넘게 모시다보니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이나 현장스님 또한 남다른 인연이 되었다. 이 스님들은 디자인이나 문화상품에 대한 인

식이 매우 밝으셔서 덕현스님은 필자가 개발한 「불자문패」를 보시자마자 '이제야 제대로 된 문패를 본다.' 하시며 우선 길상사 신도들에게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1천개나 주문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사장 덕운스님이나 사무국장은 필자가 제6대 광주 본부장을 다시 맡게 된 이후에야 직접적인 인연이 닿게 된 사이였다.

업무 관계로 몇 번의 전화는 있었지만 두 분이 광주모임 15주년 기념 행사차 방문하시면서 본인의 연구실을 직접 찾아오셔서 '매뉴얼 북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말씀하셨을 때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다. 20년 전, 그 때의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였고, 그 후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치면서도 혼자서만 가슴앓이를 한 채 포기해버렸던 아픔들이 갑자기 하나씩 돌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행사 때 법인이나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면 으레 인사와 더불어 명함을 주고받게 되는데 명함을 보면 코

미디가 따로 없었다. 어떤 이는 스티커의 글씨까지 함께 축소하여 판독이 어렵거나, 또 어떤 법우는 자기 마음대로 색채를 바꿔 차별화를 하고 있거나, 또 어떤 이는 아예 박스를 해체하여 연꽃만 뽑아서 쓰고 있거나... 명함 20장을 받으면 백인백색이었다. 어디 명함뿐이라.

지방에 행사가 있다고 초대 받아 가면 어느 곳이나 행사장 중앙에 맑고 향기롭게 「상징기」를 부착해놓는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스티커를 무리하게 몇 미터씩 키우다보니 가로 세로 비례가 틀린 경우, 실크인쇄 색상 자체가 떡이 된 경우, 심지어 내가 그린 디자인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배다른 자식까지 등장했다.

교과서인 매뉴얼 북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니... 자원봉사자 가슴띠나 모자들,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의 크기나 부착장소, 행사 포스터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자기 방식대로 인쇄해 사용한 각종 봉투들, 기념품 외곽에 날염으로 번진 스티커

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저작권 침해에다 무질서의 극치였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명찰인 스티커 한 장만 달랑 만들어 주었으니, 어떤 지방에서는 머리에도 붙이고, 또 어떤 곳은 등판에도 붙이고 심지어 허벅지에 붙여 쓰는 곳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제작자로서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다른 기업체나 사찰들의 CI·TI를 20여 단체나 작업해 주면서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갓집 작업'은 손도 못 댄 채 뇌물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었다. 그랬었는데,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매뉴얼 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논의할 때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는가.' 싶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분명 시절 인연은 따로 있었다.

❖ 문화상품 개발과 상징의 의미

필자는 20년 전의 자료들을 뒤져 미완의 작업에 다시 손을 대게 되었다. 그리고 만 1년 2개월에 걸쳐 문화상품 개발까지 끝내고 '맑고 향기롭게 2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발

표하게 되면서 그 동안의 사연을 풀어 놓게 된 것이다.

필자는 광주 본부장의 입장을 떠나 평생을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란 화두를 안고 살아 온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우리가 20주년이 되면서 문화상품개발까지 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작계는 법정스님의 참 뜻을 문서 포교에서 시각(視覺)포교에 이르기까지 보다 크게 탈각(脫却)된 시민단체의 이미지로 매사에 선도해 보자는 의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온 저가저급(低價低級)한 불교용품이 아니라 다소 생산단가가 높아지더라도 현대화된 「한국불교의 얼굴」을 개발하여 우리의 자긍심을 지키는 시각 포교의 리더가 되어 보자는 뜻이다. 그래서 「법정의 정신」이 한국뿐 만 아니라 미래에 국제적으로 널리 선양될 때 당당히 국적 있는 한국불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권하

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외적으로 불교의 시민단체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 곳에 이른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해보았지만 일부 개인적 기부나 회원들의 회비로만 이끌고 가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멀리 내다본다면 스스로 자립하는 시민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길상사 경내를 시작으로 전국 지부에서 '맑고 향기로운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이 향후 자립과 사회에 재환원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남의 신세 지지 말라.'는 법정스님의 뜻에도 일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각포교를 통하여 한국불교 참모습의 격을 높이고, 서서히 자립을 향한 시민단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둘째, 여기에 함께 편집된 몇 가지 기본(Basic)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지금껏 사용해온 스티커는 문자 그대로 가급적 스티커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새롭게 개발된 심볼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를 총칭하는 트레이드마크다. 20년 전 법정스님의 뜻을 담아 팔정도(八正道)의 상징이었던 '막 피어난 여덟 개의 꽃잎'은 있는 그대로 옮겼다.



②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 연꽃위에 올린 9개의 별(星)중, 큰 별 셋은 마음, 세상, 자연'을 의미하며, 합하여 9개가 된 것은 우리들의 '9가지 실천 강령'을 뜻한다.

맑고 향기롭게 Maigo Hyanggiropge

③ 정사각형의 외곽선과 바탕 색상을 스티커의 레드(Red)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그간 사용해왔던 스티커의 친근감을 그대로 연장하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

④ 로고타이프의 글씨 「맑고 향기롭게」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시 최초로 사용된 「갑인자」 글꼴에 접근시켰던 디자인으로서 20년 전 글씨를 다시 정리하여 확정 시켰다. 또 나중을 위해 개발해 둘 필요가 있는 '영문자' 로고타이프는 한글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글자의 무게중심을 상단에 두는 어센더 라인(ascender line)기법으로 작업했다.

⑤ 영문자 개발 시 번역된 단어로 하지 않고 '한글의 소리음'대로 정리한 것은 번역된 단어로 했을 경우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었다. 또 우리나라 태권도가 외국 도장에서 '경례', '차렷', '앞차기' 등 우리말 구령 그대로 하듯이 맑고 향기롭게

를 '단체의 고유 명사'로 인식하여 「TI협 의 위원회」 합의에 의해 이렇게 영작했음을 알려 드린다.



⑥ 일러스트 캐릭터 '연풍(蓮風)'을 새로 개발한 것은 심볼의 '연꽃과 별'을 펠친그림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고심했으며, 심볼을 보좌하고 주연을 돕는 조연의 필요성 및 향후 개발될 문화상품의 어시스트를 위해 제작하였다.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맑고 향기롭게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면 상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했음을 양해 바란다. 이제 중심교과서인 매뉴얼 북이 제작되어 전국 지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매뉴얼 지시대로 작업되기를 부탁드린다. 또 이 지면을 빌어 1년 반 동안 고생해주신 「TI협의 위원회」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미술과 디자인에 관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

글 • 덕 운(德耘)

우리는 신문, TV등을 통하여 매일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 등을 접하고 삽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 등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험악해진 이 세상에 혐오감을 느낄 만큼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끔찍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대부분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탐욕이 불씨가 되어 어린이를 납치하기도 하고, 연약한 여자를 잡아 사창가에 팔아넘기기도 하며 심지어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업이

되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란 들고 도는 것이나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윤회의 수레바퀴는 더욱 세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얽매이면 '나'의 윤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고요한 행복인 도(道)와 합하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구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욕망을 끊고 도에 합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 돈이 서로 상충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속에 바로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시방(時方) 어느 곳

에나 있습니다. 그러니 돈 속에도 도가 있는 것입니다. 돈 속에 도가 있으므로 도로써 돈을 쓰면 돈을 쓰는 자체가 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써 쓰는 돈, 이것을 부처님은 보시(布施)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보시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덕목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시(財施)입니다.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햇볕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을 통하여 도와주는 보시도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법시(法施)입니다.

정신이 온전해 질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정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필요 이상의 옷

과 물건들로 사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기 정신을 팔고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보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외시(無畏施)입니다.

두려움 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줄 수 있다면 가장 큰 무외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보시 중에서 쉽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재보시입니다. 재보시를 많이 하면 인색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탐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므로 정신이 맑아지고, 재물로써 남을 살렸으니 마음 가득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간탐(慳貪)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서 보

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너럭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란 말은 ‘보시로서 바라밀 한다.’는 말이며 이는 보시로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지름길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잘 하면 해탈의 법락(法樂)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에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자비로서 보시해야 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할 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이 셋을 모두 잊어야 합니다. 이것을 삼물(三物)청정이라고 합니다.

또 뭔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거래와 가깝습니다.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나와 너라는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베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런 마음으로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참 보시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제후가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높고 재물도 많은 맹상군은 어느 해 생일날, 호화판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리고, 풍악소리에 맞추어 미희들이 춤을 추었으며, 손님들이 가져온 선물꾸러미가 방에 차고도 남았습니다. 맹상군은 유쾌하여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좋다.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한 상을 내리리라.”

그러자 눈먼 장님 한 사람이 앵금(해금: 2줄로 된 칠현악기)을 들고 맹상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해 보아라. 네가 재주를 다하여 나를 슬프게 만들어 보도록 하라.”

그 말을 듣자 장님은 앵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다가 좀 지나자 지옥의 고통 섞인 소리를 만들어 내었고, 연이어 애간장을 녹이는 듯, 창자를 끊는 듯 한 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모두가 앵금의 소리에 넋을 잃을 즈음, 장님은 기가 막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空手來 空手去(공수래 공수거)이나니
世上事 如浮雲(세상사 여부운)이라.
成墳墓 人散後(성분묘 인산후)면
山寂寂 月黃昏(산적적 월황혼)이나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뜬 구름과 같구나.
분묘를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적절한 산속에 황혼이여라.」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장님이 앵금을 세계 통기자 줄이 탁 끊어졌습다. 앵금 줄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맹상군은 통곡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인생의 무상을 크게 느꼈고 그리고는 앞으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맹상군은 자기 집에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국밥을 끓여 3천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국밥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한 끼라도 와서 먹으라는 것이었으며, 3천명의 식객이 밥 먹는 소리가 20리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장님의 노랫소리에 인생의 실체를 깨달은 맹상군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풀었습니다. 험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매일 3천명분의 국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맹상군처럼은 못할지라도, 베푸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베풀 것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

다. 자기 분수껏 역량 따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행이고 도심(道心)이기 때문입니다.

三日修心(삼일수심)은 千載寶(천재보)요
 百年食物(백년탐물)은 一朝塵(일조진)이라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니라.

우리는 하루아침의 티끌이 될 재물을 탐하지 말고 천년의 보배가 될 마음을 닦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善)이라도 행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질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더 나아가 법계가 사람들이 살만한 불국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안거 해제일이자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동안 선원 혹은 법당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정진하셨고 또 가정에서도 신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제한다고 해서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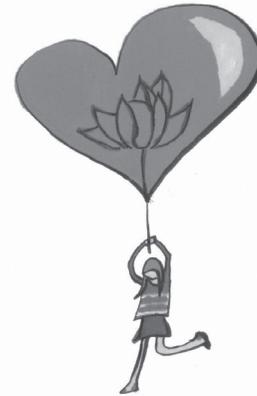
그리고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며 율력서에 의하면 천, 지, 인 삼자가 합일하고 이를 받들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고 한 해의 운세를 점치며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오곡밥(팥, 수수, 차조, 찹쌀, 검은콩)과 부럼, 귀밝이술 등을 먹어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했던 날입니다.

이러한 음식들 드셔서 건강한 한해 되시고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막힘 없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 1월 15일 동안거 해제
 법문(2014년 2월 14일)

사랑

맑은 만남(淸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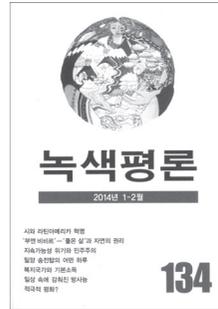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맑고 향기롭게 20여년을 추구하며

격월간지 <녹색평론>

“<녹색평론>이라는 격월간지가 있는데, 이 책이 대구에서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평론>은 생태환경 운동 순수지입니다. 창간호부터 구독하고 있는데, 나는 생태에 관련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여기서 얻어 들었습니다. 이런 잡지가 널리 읽힌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 법정스님 2003년 10월 맑고 향기롭게 대구 초청강연회중에서 -



이상한 잡지가 있다. 모두가 돈을 버는 법을 외칠 때, 고르게 가난해지는 법을 얘기하는 잡지다. 다들 성장과 개발로 내달릴 때, 줄이고 놔두고 나누라고 한다. 세계화 소리가 드높을 때, 우리 동네 소박한 공동체를 예찬한다. 그런데 이런 괴상한 잡지가 나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바꾼다. 아주 천천히, 기본 좋게, 세련된 책도 아니다. 디자인도 용지도 장정도 대단치 않다. 하지만 책을 받아드는 날은 가슴 뿌듯함과 따뜻함이 느껴진다. 나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공감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그

세상에는 도전과 성공이라는 논리로 미화되는 이기심과 욕망도, 문명화로 용인돼 온 오염과 파괴도 없다. 무한 경쟁의 논리나 양극화의 불균형도 없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평화롭고 생태적인 삶을 이야기할 뿐이다.

- 녹색평론 독자의 글

<녹색평론>은 1991년 10월 창간되어 우리 사회에 환경·생태 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격월간 잡지이다. 두 달에 한번 발행되는 <녹색평론>은 2014년 3월 현재 통

권 135호가 발간되었으며, 발행 부수는 1만부를 돌파했다. 정기 구독자가 5,000명이 넘고, 가정주부에서부터 학생,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직장인,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그 독자층이 다양하다.

권정생, 박경리, 박완서, 법정스님 등 타계한 문화계 어른들이 <녹색평론> ‘열혈 독자’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때 문학평론가였던 김종철 교수는 <녹색평론>을 발간하면서 사상가, 생태 지식인으로 불리게 됐는데 “문학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기에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이 언제부터인가 협소한 범위로 한정돼 버렸다.”며 생태운동으로 돌아선 이유를 말한 바 있다.

<녹색평론>은 경북 대구에서 1인 미디어로 출발했다. ‘책을 어디서 누구한테 판다는 계획도 없이 좋은 책을 만들면 잘 나가겠지’라는 순수한 생각을 통해서 기업체 사보 등에 소개되고, <강아지똥>의 저자 권정생이 원

고료를 받지 않고, 거꾸로 자신이 받은 다른 원고료를 이 출판사에 보내는 등 문화계 어른들의 관심으로 10년, 20년을 넘어 30년을 향해 계속 그 푸름을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적 움직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녹색평론>에는 출판사 광고이외에는 일반 광고가 없다. <녹색평론 선집>은 창간호부터 각 해에 실린 글들 가운데 그 정수만을 가려 엮은 책이다. 이 잡지의 의도와 지향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여 준다. 그리고 <녹색평론>이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것은 끝없이 팽창하는 산업 경제와 산업 문화가 물러나고, 새로운 차원의 농업 중심 사회가 재건되는 것만이 생태적, 사회적 위기와 모순을 벗어나는 유일하게 건강한 길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녹색평론>은 매체를 통한 녹색운동의 실천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맑고 향기롭게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계속적으로 기부금이 답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금의 기부 방법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후원계좌 이체, CMS(자동이체) 정기후원, 캠페인 현장 모금, 다음 희망해, 네이버 해피빈 등 인터넷 모금을 통해 총 7,891,62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정성은 2013년 12월 말, 소식지를 통하여 결연 대상자로 사연이 소개되었던 8명의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었습니다.

6명의 어르신에게는 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각 50만원씩이 지급되었고, 5월의 결연 대상자였던 김수임 어르신에게는 다음 희망해 인터넷 모금으로 모아진 후원금

1,136,420원 전액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7월의 결연 대상자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김태일 어르신에게는 한 해 동안 생계비로 매월 20만원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셨던 청빈의 가르침을 실천해주신 기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8년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43.6명으로, 30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노인자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에서 약 3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10명이 모두 노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10대 자살률이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비는 노령연금 9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 안팎. 보통 월세 20만원을 지출하면 나머지 2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합니다. 독거노인이 차상위계층일 경우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생계급여 지원이 없고 의료보호 혜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어르신은 노환으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마주하는 의료비 부담은 매우 치명적이고 아주 서글프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작년에 처음 진행하며 겪었던 경험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13차례의 ‘아름다운 마무리’ 거리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4호선 한성대역을 시작으로 여러 지하철역에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경내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 현장에서 노인자살예방 계몽 캠페인 동참 서명을 받으며 시민들과 인식을 공유해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재개할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상사를 명상과 참선 수행공간뿐만 아니라 길상화보살의 무주상보시와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나눔의 문화로 더욱더 확산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청정도량에서 매월 마지막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법정 공휴일이 없는 경우 첫째 일요일)을 기해 월 2회 만나 뵙고자 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에서 웃으며 만나 뵙겠습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맑고 향기롭게)

국내 총생산의 6%, 사교육 파열 언제까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는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3등인 미국과 그리스는 각각 1.61%, 1.32%였으며 5등을 차지한 일본은 1.17%였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해 말, '한국의 사교육비가 국내 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대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돈일까?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정도다. 100조의 6%라면 일 년에 66조가 사교육비로 쓰인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자.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하여 속칭 스타강사 일부를 포함한 강사 16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과외를 운영해 왔다.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냈다. 강사들은 고교생과 재수생 30여명으로부터 6개월간 최소 16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

된다.」(2011 3월 22 MBC 보도)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교육비 총액은 40조 5284억 원이다. 이 중 사교육비가 21조 6000억이라고 했으니 공교육비는 20조 정도라고 보면 맞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정말 21조 6천억뿐일까? 정부발표대로 21조 6000억…….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큰돈인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1조니 30조니 하는 불확실한 수치가 떠도는 이유는 음성적인 사교육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허왕희가 쓴 '비겁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보면 30조 사교육비의 진실을 엿볼 수 있다. 화폐단위 억 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30조라는 돈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들어 간 돈이 22.2조다.

65만 명의 국방부 식구들의 의식주와 급여, 그리고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 국방비예산이 2011년 기준 31.3조원이요, 1,033만 명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0조다. 앞으

로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이대로 좋을까?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설학원이 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 30%정도로 빼면 전체 인구의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재수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7,718,750명이다. 70%의 학생 5,403,12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인당 사교육비는 5,552,342원이다. 도시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으니 소득의 20%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형편이 좋은 집은 150~200만원, 과한 집은 3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가계빚 800조라는 보도에서 우리 부모들

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출자의 대부분이 빚쟁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을 안고 사는 나라,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 고시나 취업준비나 시키는 일류대학…….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믿어도 좋을까?

아이 한 명을 낳아 22년 동안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기준, 2억6204만 원, 년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결혼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충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계산 한 번 더 해 보자. 201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393만6000원으로 연간 50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정을 꾸려 평균 25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버는 걸로 가정하고, 아이 둘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는 비용을 대는 것으로 가정하면 '평생 버는 돈 (5000만 원 × 25년 = 12억5000만 원) - 자녀 양육비 (4억 × 2명 = 8억) = 4억5000만

원이 된다. 이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프레시안 2012.04.04, 08)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5.31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 대통령.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마음 놓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 그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놓았을까?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임기 내 시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놓았는가?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사교육이란 '돈으로 성적을 사는 경쟁'이다. 돈을 들여 아이들 성적을 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없이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배움에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그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

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사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교육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학교조차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없는 학교는 학벌사회로 이어지고 학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독버섯이 되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를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할까? 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처럼 사교육이나 경쟁이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노인층은 늘어 가는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절망적인 미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30대 어른의 성장 만화 -마스다 미리의 작품들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얼마 전 마스다 미리의 만화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마스다 미리가 누구냐구요? 마스다 미리는 일본의 여성 만화가입니다. 1969년에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의하면 2006년에 발표한 <수짱>이 일본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여성의 정신적 지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작품을 읽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부터 마스다 미리의 만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작품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걸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수짱의 연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주말엔

숲으로>, <치에코씨의 소소한 행복 1, 2>, <밤하늘 아래>, 아홉 권입니다.

마스다 미리의 작품은 이렇게 한국에도 아홉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좋고, 인기가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작품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공감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앞의 다섯 권을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마스다 미리의 작품은 우리가 봤던 만화들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우선 마스다 미리 만화의 주인공들은 3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치에코씨의 소소한 행복 1, 2>를 빼면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여성인데 그들은 모두 30대 이상인니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거지요. 그러다보니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도 30대의 삶과 고민이 대부분입니다. 직장과 사랑, 결혼, 나이 들, 자기 정체성, 꿈같은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든 주인공들이 나오는 만화는 이밖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스다 미리 작품의 주인공 여성들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수짱은 체인점 카페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짱의 지인 오카무라는 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여성으로서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직장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카무라의 경우는 미모를 가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작품 속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봐왔던 낭만적인 로맨스나 극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 수짱부터 예쁘지 않고, 몸매

가 좋지도 않으며, 특별한 재주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그곳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때론 지겨워하고 때론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다 미리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혼자 삽니다.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과 아이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학교육이 일반화 되어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된 여성들은 가정과 육아에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정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불

평등과 지나친 육아 비용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스다 미리 작품의 주인공들이 혼자 사는 것은 모두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스다 미리의 작품 속에는 혼자 사는 30대 여성들의 고민들이 짙게 드러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보통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을 함으로써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빠져들게 합니다. 마스다 미리 작품의 주인공 격인 수짱의 경우에도 혼자 사는 30대 여성이 30대를 통과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고민들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말입니다. 수짱의 고민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대인관계, 결혼, 수입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마주치

는 수짱은 그 순간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내가 괜찮은 거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삶은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외모나 능력, 재산 같은 방어막이 없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다 미리의 작품이 좋은 것은 바로 그 순간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삶을 현미경처럼 보여주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 역시 그리 큰 사건도 없고 고민들도 비슷 비슷합니다. 마스다 미리의 작품 속의 인물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다 미리의 작품을 읽으면 그냥 내가 사는 모습 같고 내가 하는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더 호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다 미리는 앞서 언급했듯 평범한 30대 여성의 삶과 고민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스다 미리의 작품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힘들어 하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수짱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고 일기를 쓰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긍정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긴장을 놓지 않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짱은 올바른 자신, 좋은 자신이 되기 위해 참고 견디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벽하게 올바르게나 좋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긍정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스다 미리의 작품은 이렇게 주인공이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쉽게 남에게 털어놓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피고 다독이며 풀어나가는 수짱의 모습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만화는 바로 어른의 성장 만화입니다. 수짱 이외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스스로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현대 여성들의 자화상과 현대인의 모습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나 역사 같은 이야기가 생략되고 사적인 생활에만 집중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 작가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어렵겠지요. 한 번만 보고 말 만화가 아니라 두고두고 펼쳐보게 되는 만화이니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보(佛寶)를 수지한 스님 <승주, 송광사>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때는 신라 말엽. 여름 안거를 마치고 1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행길에 오른 혜린선사는 험한 산중에서 하룻밤 노숙하게 됐다.

“스님,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나?”

“나라 안에 번지고 있는 괴질이 이 산중까지 옮겨졌는지 일행 중 두 스님의 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찾아볼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말고 기도하며 잘 간병토록 해라.”

이튿날, 혜린선사는 약초를 뜯어 응급처치를 취했으나 효험은커녕 환자가 하나 둘 더 늘어나 털썩털썩 풀썩에 주저앉았다.

“모두들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질병임을

느낀 혜린 스님은 엄숙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서원한 출가 사문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릇 출가사문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기력이 있어야 하거늘 이만한 병고쯤 감당치 못하고서야 어찌 훗날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오늘부터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정진에 들 것이니 전원이 한마음으로 기도토록 해라. 필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라.”

기도로써 병마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혜린선사는 정결한 기도처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아니, 이럴 수가…….”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

로 가까운 곳에 연잎이 무성한 연못이 있는가 하면 못 가운데 문수보살 석상이 우뚝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뜻밖의 발견에 스님은 기뻐다.

“문수보살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문수보살을 향해 정좌한 일행은 기도에 들어갔다. 7일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이제 모든 시련이 다 끝났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이 길로 새 절터를 찾아 절을 세우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실천토록 해라.”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을 친견한 혜린선사는 감격 또 감격하여 절을 하다 눈을 떠보니 부처님은 간 곳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 혜린 스님은 또 놀랐다.

“스님 저희 모두 질병이 완쾌됐습니다. 스님의 기도가 극진하여 부처님의 영험이 있으셨나 봅니다.”

다 죽어가던 제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환호하는 광경을 본 혜린 대

사는 다시 눈을 감고 앞에 의연히 서 계신 문수보살님께 감사했다.

“저희들을 사경에서 구해주신 문수보살님,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보살님의 거룩하신 자비심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혜린 스님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어안이 병병했다. 언제 오셨는지 노스님 한 분이 미소를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문수보살 석상이 생불로 화현하셨나?”

혜린 스님은 못 가운데로 눈을 돌렸다. 분명 그곳엔 문수보살님이 서 계셨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스님은 정중하게 합장 배례한 뒤 노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스님이신지요?”

“소승은 석가세존께서 스님에게 전하라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노스님은 붉은 가사 한 벌과 향내음 그윽한 발우, 그리고 세존 진골의

일부분인 불사리를 건네주었다. 헤린 대사는 감격하였다.

“이런 불보를 감히 소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 말고 수지하십시오. 그리고 대사! 소승이 전하는 말을 꼭 명심하여 실천토록 하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전라도 남쪽 땅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송광산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불보를 모시고 불법을 전할 성지입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니 대사께서 어서 가서 절을 세우고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노승을 통해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헤린 대사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삼배를 올렸다. 절을 마치고 보니 노스님은 간 곳이 없었다.

헤린 대사 일행은 전라도로 발길을 옮겼다. 여러 날이 지나 지금의 승주군 송광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일행은 백발이 성성한 촌로를

만났다. 노인은 반색을 하며 정중하게 합장 배례를 한 후 궁금한 듯 물었다.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오셨는지요?”

“예, 송광산이 영산이라기에 절을 세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장차 이 산에서 십팔공(十八公)이 출현, 불법을 널리 흥포할 것이라 하여 십팔공을 의미하는 ‘송’자에 불법을 널리 편다는 ‘광’자를 더하여 ‘송광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산에서 성인 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때였다. 송광산 기슭에 오색 무지개 같은 영롱한 서기(瑞氣)가 피어 올랐다.

“오! 저기로구나.”

맑은 계곡을 따라 서기가 피어오른 곳으로 향하던 헤린선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석장을 꽂았다.

그날부터 절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나무를 베어내고 잡초를 거두고 터를 닦으니 고을에서 뿐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속히 성인이 출현하길 기원하면서 불사에 동참했다. 절이 완성되어 진골 불사리(佛舍利)를 모시던 날 밤, 절 안에는 교룡(蛟龍)이 나는 듯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선사는 절 이름을 길상사(吉祥寺)라 칭하니 이 절이 바로 16국사를 배출하고 선풍(禪風)을 진작시킨 조계총림 송광사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吉祥寺
불교대학 5기 모집
 개강 : 2014년 3월 6일(목)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4년도 제 5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제가 법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제 :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3월 6일 ~ 다음해 1월 /졸업
- 제출 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2매
- 접수 : 현재 상담 및 접수 중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주간반/야간반)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학사일정은 추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로 혹은 같이, 부부라는 이름의 공동체

글 • 이정숙(수필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다음 날 마실 주스를 준비하기 위해 당근을 씻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8시가 다 됐는데 들어가서 머리부터 감아야 하지 않아?”

안다. 난 지금 주방에서 어정거릴 때가 아니다. 머리를 감고 대충 뭐라도 찍어 바른 다음, 공부상을 펴고 아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도 난 여태껏 주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없는 동안, 가족들이 먹을 식사를 마련해 줘야 하고 내일 아침 가족들이 마셔야 할 주스를 준비해야 한다. 세탁기도 돌려야 하고, 여행 준비도 해야 한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따질 수는 없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

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이 세 개, 네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동동거리는데도 내 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은 도무지 끝이 나질 않는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내게 더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가까웠으니 머리부터 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먹을 주스가 없어서…….” 그 말에 남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응대한다.

“주스? 한 번 안마시면 어때? 없으면 하루 건너뛰면 되지. 그리고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면 되고 덕분에 딸이랑 외식 한 번 해도 좋지. 얼른 가서 머리부터 감고 나와.”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내내 부산스러운 아내가 딱해 보였던지 손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챙긴다. 인절미를 굽고 조그마한 종지에 꿀을 뜬 다음, 가족 수대로 해독주스를 따라 쟁반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간다.

엊그제 우리 집 아침 풍경이다. 토요일이라 아침 8시 반부터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 수업은 수업대로, 집안 일은 집안일대로 해야 하고 여행채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

난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신원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딸의 엄마이며 한 가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주부’라는 위치에서 한 시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집을 떠나야 한다. 1박 2일 일정이다. 그것도 한 달 새에 두 번이나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두 배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엄마의 자리, 주부의 자리가 비어 큰 일 날 일 없고, 남편이 숙박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은 자유스러운 만도 하건만 난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 동안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부산을 떠난다. 나의 부재로 인한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이거나 의무감 때문이리라.

예정된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회돌짝 반긴다. 많이 늦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찍 돌아와서 반가운 모양이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남편이 옆방으로 가더니 이부자리를 편다. 늘 곤하게 사는 사람이라 한숨 자려나 보다 했는데 나더러 누우란다. 먼 길 다녀왔으니 한 숨 자라는 것이다. 문득 황송해진다. 혼자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온 아내가 아닌가. 아내가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이틀간의 부재의 흔적을 지워야 할 것 같지만 남편이 시키는 대로 누워 한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새 어둑해졌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아침미사를 못 드렸으니 저녁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남편의 저녁 식사 시간이 걸린다. 미사에 다녀온 다음 식사를 해야 할지, 가기 전에 밥을 차려야 할지를 몰았더니 일단 미사부터 다녀오란다. 그래, 참을 만하면 참고 아니면 뭐라도 입맛을 다시겠지.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밥 하려면 피곤할 텐데 한 끼 대충 사먹잔다. 참 감사하다. 1박 2일 동안 실컷 놀고 돌아와 남편의 이런저런 배려까지 받고 나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해진다.

돌아보니 아득한 세월이다. 한 남자의 아내로, 두 딸의 엄마로, 한 가정의 주부로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어디 한 번 떠날 때마다 늘 가법질 았았다. 남편의 눈치도 살피야 했고 나 없는 동안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겨놓고 나오려다 보니 떠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의 이런 저런 배려를 받으며 만감이 교

차했다. 아, 그렇지.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었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며 이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들썩워진 주부라는 이름도 있지만 나만의 이름이 있고 나다움을 지키고 누릴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었지.

아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때로는 훌쩍 떠날 수도 있어야 하고 가끔씩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루 이틀 그의 부재로 인한 불편일랑 가족들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우리 남편 말대로 밥 없으면 어떤가. 또 주스 한번 거르면 어떤가. 하루 이틀 대충 끼니를 때운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게 마치 죄짓는 일이라도 되는 양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아득바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엄마, 혹은 아내라는 이름이, 심지어는 주부라는 이름까지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2014년 숲기행 안내

1. 주제 : 숲과 문화
"숲과 어우러진 삶의 문화를 찾다."
2. 일정 : 4월~6월, 9월~11월 첫째 토요일
3. 예정지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반인과 함께하는 숲기행

- 4월 5일 : 경남 하동 쌍계사&섬진강 일대
- 5월 3일 : 경남 청도 운문사&솔숲
- 6월 7일 : 강원도 평창 월정사&전나무 숲길
- 9월 13일 : 경남 통영 미래사&생태섬
- 10월 4일 : 경남 양산 통도사&반구대 암각화 유적지
- 11월 1일 : 전남 순천 송광사&거석문화유적지 (봉사자 참여)

• 공부방 청소년과 함께 하는 숲기행

- 7월 30일 : 경기도 청평 중앙내수면연구소&조종천
- 8월 18일 : 강원도 평창 오대천&산촌마을

4.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3월 10일부터 전화 접수 받습니다.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

수, 돈보기, 필기구 등
(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예정가) : 회원 30,000원 / 비회원 35,000원(한국환경재단단체진흥회 공모, 지원금액 결과에 따라 참가비가 추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5. 참가비 환불 원칙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산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반반한 취소, 변동으로 참가하실 분의 참여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전화 주실 때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를 꼭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 문의하세요.

※ 문의처 : 중앙모임 02-741-4696~7

담당 : 김소영 팀장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및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 02)741-4696



2014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 지원 및 추천 받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스님께서 주창하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와 길상사를 무수 상 보시한故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로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매년 선발하여 1년간 학비 전액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의 장학 사업은 법정스님께서 송광사 내 불일암 시절 자신의 수필집 '무소유' 인세를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시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불일 장학금'의 정신을 이어받아, 1994년 본모임 창립 시부터 시작하여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총483명의 중, 고등학생(총지급액: 약 6억천여만 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뛰어난 성적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의 학생을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회원, 지역모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여 내 주변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둘러보시고 추천해주세요.

- ▶ **장학 대상**: 전국 고등학생 (30명 내외)
- ▶ **장학 기간**: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 **장학 내용**: 학비 전액
- ▶ **추천자**: 회원,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지역모임 사무국
-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외 추천 사유

- 학교 장학생 담당자의 확인 기재
- 학생의 주소, 연락처, 학년, 반 명기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본, 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추천서 접수 마감**: 2014년 3월 22일(토) 우표소인까지

▶ **장학생 선정 발표**: 2014년 4월 4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4월 18일(금)

▶ **문의처**: 02)741-4696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www.clean94.or.kr) 공지 참조

천연화장품 특별강좌 안내 및 봉사자 모집

- 4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 한방 녹차 스킨 만들기
- 10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수분크림 만들기

※ 천연 화장품 유경험자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학생들을 위해 화장품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결식이웃 말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7기 말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일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

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4일(화)/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20주년 기념 음악회/3월 30일(일) 오후 2시/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말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6,13,20,27일)/금요일(7,14,21,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3,10,17,24,31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9,16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봉사 일손 돕기 정



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2일) 오전 8시 30분/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 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친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5일)/ 오후 1시/삿달타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5,12,19,26일(수)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3월 30일(일)/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예금주 : (새맑고 향기롭게
문의 : ☎ 02)741-4696~7

광주모임 (062-236-3129)

3월 정기 활동 안내

- 도시락 나눔활동 - 매주 월요일~금요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활동
- 공양 나눔 센터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새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3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나동산(장애인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새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3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봄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자원/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055) 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이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구입문의 ☎ (055) 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 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새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대전모임

3월 정기 활동 안내

- 지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새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3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세 번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2013년 중앙모임 결산 보고

(단위: 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기본 수입	일반 후원	일반(회원) 후원	273,695,651	사 업 비	장학사업비	장학금	62,006,850
	결식후원	결식후원	189,228,608		결연가족 후원사업비	결식이웃후원	215,618,575
특별 후원	결식이동 후원	결식이동 후원	980,000			결연가족후원	26,574,820
		의료비지원	18,000,000			자연재해 구호성금	5,000,000
	일반후원	40,981,740	자연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10,747,280	
	장학금 후원	5,372,180	일들환경지킴이모임		8,568,525		
보통 수입	자연 활동	말고향기롭게 살기 캠페인	9,233,600		녹색나눔장터	1,783,470	
		지역모임 활성화사업	11,375,000		지역모임 활성화사업	자부활성화	28,100,000
	저작권 수입	저작권 수입	7,415,544		계몽활동비	소식지발간 및 배포	53,122,170
	기타	이자수익	예수금			19,348,431	연꽃스티커 제작&배포
기타홍보물 제작 및 배포						1,500,000	
홈페이지관리비	7,753,560	회원교육비	3,168,140				
말고향기롭게살기 캠페인	9,281,500	말고향기롭게살기 캠페인	5,842,460				
모금캠페인	11,110,320	기타홍보물	3,350,525				
일반후원수수료	3,350,525	일반관리비	179,534,365				
합 계	599,283,867	지출 합계	670,562,560				
전년 이월금	724,753,643	차월 이월	653,474,950				
총 계	1,324,037,510	총 계	1,324,037,510				

:: 2014년 중앙모임 사업계획, 예산

(단위: 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기간	지출예산	
관	항	목				
마음	계몽 활동비	소식지발간 및 배포	월간 '말고 향기롭게' 정기 발간	매월	5,500	
		연꽃 스티커	연꽃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연중	300	
		말고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말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 수련회 개최	10월	200	
		시스템유지보수	법인 회원정보 네트워크 관리비	연중	400	
		회원교육, 교류	지부 사무국 교류, 회의, 봉사팀 정기 간담회 봉사자교육비지원, 모범활동자 표창 및 송년회	연중	950	
		말고향기롭게 캠페인	말고 향기로운 음악회, 강연회, 모금캠페인	연중	1,800	
		기타홍보물	사업홍보 인쇄물 제작, 동전모금 저금통 제작 후원회원 배포용 달력 제작	연중 12월	1,600	
		일반후원 수수료	CMS 자료수수료	연중	350	
		장학사업	장학금	전국 일반 고교생 대상 30명 내외 선정 -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 년간 지급	연 4회	6,300
				결연가족후원	장애인시설, 극빈자 재정보조, 복지시설정기봉사 장애인동, 청소년 캠프, 월곡청소소년단 위탁운영지원	매월 8월
세상	결연가족 후원사업	결식이웃후원	결식이웃, 독거노인, 극빈가정 최대 420가구 명절 물품 후원, 분기별 생필품 상품권 전달 월 1회 감치 전달, 연말 감장 지원(4000여 포기) 전화일벌사례관리,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후원	연중	19,950	
		구호성금	국내외 자연재해 구호성금	연중	1,000	
		문화사업후원	장애인문화단체, 소규모문화단체지원	연중	400	
		기타특별후원	정기후원사업의 특별후원(녹색장터 수익금)	연중	500	
		의료비 지원	극빈자 의료비 지원 사업	7-8월	2,000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숲과 문화 "숲과 어울린 삶의 문화를 찾다." 일반인(4~6월9~10월), 봉사자(11월), 청소년(7,8월)	연중	1,300	
		일들환경 지킴이 모임	친환경화장품 수요조사, 성북구공부방청소년생 태교실운영, 의류 재활용 리폼	연중	900	
녹색나눔장터	녹색 나눔 장터 운영, 캠페인 연계	부처님 오신날 친환경 체험 마당, 사랑나눔자화참여	3월~10월 5월,10월	200		
		환경연대활동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 환경 교실-텃밭 기르기	부정기	300	
지부 연대	지역모임 사업	자부활성화	지부 활성화목적으로 활동비 지원 (각 지역모임 마음, 세상, 자연 사업 전개)	연중	4,000	
운영비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중앙모임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연중	18,200	
총 계					68,420	

다라니기도

- 일시 : 3월 1일 (오후7시~9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3월 8일 오후9시~3월 9일 새벽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3월 8일 오후8시30분 ~ 3월 9일 새벽3시50분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3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5일(토)~16일(일)
넷째 주말 22일(토)~23일(일)
- 참가비 : 7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춘계 관음기도 안내

- 입재 : 2월 15일(음 1/16)토요일
- 회향 : 5월 12일(음 4/14)월요일
- 동참금 : 5만원

경전반 개강 안내

- 과 목 : 생활속의 금강경
- 강사스님 : 광우스님
- 개 강 일 : 3월 3일 (16주 강의)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주간반 오후 1시40분/야간반 저녁 7시30분)
수강료: 85,000 원원 (교재비 포함)

불교입문 28기 개강 안내

- 강사스님 : 광우스님
- 개 강 일 : 3월 5일 (12주 강의)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주간반 오후 1시40분/야간반 저녁 7시30분)
수강료 : 70,000원(교재비포함)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접수 안내

갑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5일	오후 8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4월 12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1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4월 2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4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일 시 : 3월 30일(일) 오후 2시
-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출연진 : 바버렛츠, 박창근

